「교육과 종교의 충돌」 논쟁에 관한 일고찰

-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와 요코이 도키오(横井時雄)의 논쟁을 중심으로 -

박은영*

〈차 례〉

1. 머리말
2. 이노우에 테츠지로의 기독교 비판
3. 요코이 도키오의 이노우에에 대한 반박
4. 이노우에의 요코이에 대한 재반박
5. 맺음말

【국문초록】

1890년 10월 30일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공표된『교육칙어(教育勅語)』는 일본 국민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천황제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중핵으로서 기능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교육칙어를 통해 절대적 천황상을 창출하여 국가 권력에 의한 교화를 꾀하고자 하였고,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칙어에 대한 예의와 복종을 강조했다. 이러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화신인 교육칙어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 중에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불경사건'은 유명한데, 이를 계기로 점화된 '교육과 종교의 충돌'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논쟁은 기독교와 국가의 충돌 문제를 공식적으로 표면화시켰다. 이 논쟁을 이끌었던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는 일본의 국체인 천황제가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는데,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이노우에의 논의에 대한 변명이나 비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노우에와 강한 국가주의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라는 방향성을 견지했던 요코이 도키오(横井時雄)와의 논쟁의 양상을 검토하여 두 충돌 주체 사이의 논리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이노우에 테츠지로, 요코이 도키오, 교육칙어, 불경사건, 교육과 종교의 충돌, 일본기독교

1. 머리말

1890년 10월 30일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공표된『교육칙어(敎育勅語)』는 일본 국민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전년에 발포되었던 대일본제국헌법과 함께 근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던 2대 성전(聖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교육칙어의 문안을 작성했던 사람은 당시 법제국 장관이었던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였다. 이노우에는 무엇보다도 교육칙어의 내용이 종교상 · 철학상의 논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는 천황이 친히 국민에게 부여한 도덕적 규범이 논쟁을 일으킬 경우 천황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에 대한 우려에서였다. 그 때문에 교육칙어의 내용은 한 가지 종지(宗旨)나 학설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심하여 작성되었다.[1)]

1)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옮김,『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p. 86

그런데 교육칙어가 대일본제국헌법과는 달리 천황이 국민들에게 직접 내리는 칙어로서 발포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곧 교육칙어는 국민도덕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천황의 신민으로서 천양무궁의 황운을 부익하는 것이 황조황종의 유훈이자 충량한 신민의 도리임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정부의 법령으로 공식적으로 반포된 헌법과 달리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칙어는 반포 당시부터 오히려 초법적 지위에 놓였음은 물론 학교 교육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로, 메이지 정부가 애초부터 의도했던 대로 절대적 천황상을 창출하여 국민들이 이를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국가 권력에 의한 교화를 꾀하고자 했던 천황제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중핵으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칙어에 대한 예의와 복종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화신인 교육칙어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 중에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 불경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이는 근대 일본사상사상 대단히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 사건이었다. 당시 도쿄제일고등학교의 촉탁교원이었던 우치무라는 교육칙어 봉독식에서 메이지 천황의 서명이 들어 있는 칙어에 대해 가볍게 머리만 숙인 채 예배적 최경례(最敬礼)는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교원과 학생이 격하게 비난하고 나아가 전국을 들끓게 하는 커다란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불경한(不敬漢)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때 우치무라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이가 당시 도쿄제국대학의 교수였던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였다. 이노우에는 일본의 국체인 천황제는 기독교[2]와 공존할 수 없다고 역

2) 본고에서 사용하는 '기독교'라는 용어는, 일본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를 말하며, 본고 전체에서 '기독교'로 통칭하였음.

설했는데, 이러한 이노우에의 논의는 기독교가 일본의 전통적 습속, 국체관념, 신민도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여론을 사회적으로 비등시켰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그의 논의에 대한 변명이나 비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논쟁을 통칭하여 이른바 '교육과 종교의 충돌' 논쟁이라 부르는데, 이 논쟁을 통해 기독교와 국가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일본의 근대화에 필요한 정신적 기초라고 여겼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이들 입신자들에게 국가주의가 강하게 의식되고 있었음은 당연하였다. 특히 본고에서 언급하게 될 요코이 도키오(横井時雄)는 구마모토(熊本)밴드에 속했던 인물인데, 이 구마모토밴드는 그들의 '봉교취의서(奉教趣意書)'[3]에서도 분명히 표명하고 있듯이 서교(西教), 곧 기독교로써 국가에 보응한다는 목표를 가졌던 그룹으로 당초부터 강한 국가주의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노우에의 칙어에 대한 입장과 그의 기독교관을 검토한 후에, 그와 논쟁을 벌였던 기독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종교를 통한 '보국'의 입장을 특히 강하게 견지했던 요코이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살핀 후 그 구조와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3) 「奉教趣意書」 1876.1.30. "우리들이 일찍이 서교(西教)를 배움에 조금 깨달은 바 있었다. 이후 이를 읽음에 점점 감동이 되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이 교를 황국에 펼쳐 크게 인민의 몽매함을 열고자 한다. 그러나 서교의 묘미를 알지 못하고 완고한 구설(旧說)에 침윤한 무리가 아직 적지 않다.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때에 당하여 적어도 보국의 뜻을 품은 자는 원하건대 감발흥기(感發興起)하여 생명을 진개(塵芥)처럼 여겨, 이로써 서교의 공명정대함을 해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바이다. 그리하여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하나오카산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이로써 이 길에 종사할 것을 요한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海老澤有道, 大內三朗, 『日本キリスト教史』,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80(7版), p. 260 참고)

2. 이노우에 테츠지로의 기독교 비판

먼저 이노우에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을 통해 그의 기독교 비판의 논리와 구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는 1855년 치쿠젠(筑前) 다자이후(大宰府)의 의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한학을 배웠는데, 1868년 13세가 되자 하카타(博多)의 무라카미 켄지로(村上研二郎)의 문하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871년에는 나가사키(長崎)의 광운관(廣運館)에 입학하여 미국인 교사로부터 영어, 수학, 역사, 지리 등의 서양학을 배우고 1874년 하등영어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도쿄개성학교에 입학했는데, 여기서 1년 뒤에 입학한 요코이 도키오(横井時雄)와 알게 되었고 이후 요코이를 통해 『육합잡지(六合雜誌)』에 관여하기도 한다. 한편 1877년 도쿄개성학교는 도쿄의학교와 통합하여 도쿄대학으로 모습을 바꾸었고, 이노우에는 철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후 1880년 제1기생으로 졸업하게 된다.[4]

이노우에는 졸업 후 바로 문부성에서 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5]의 권유로 『동양철학사』의 편집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노우에에 의하면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서양의 철학이나 종교 등은 오늘날까지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연구

---

4) 沖田行司, 「『六合雜誌』における井上哲次郎」, 同志社大學人文科學研究所キリスト教社會問題研究會, 『キリスト教社會問題研究』第30号, 1982, p. 201.

5) 가토 히로유키에 관해서는 김도형의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것.(「근대초기 일본 양학(洋學)수용의 유교적 맥락 - 가토 히로유키의 도나리구사를 중심으로」, 韓國日本學會, 『日本學報』제99호, 2014 ; 「加藤弘之의 洋學受容과 '天'의 變容」, 東洋史學會, 『東洋史學研究』제128집, 2014 ;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진화론수용 이해 - 「疑堂備忘」 독해를 중심으로 -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제27호, 2014 ; 「1874년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민선의원설립 시기상조론에 관한 일고찰」,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제72호, 2014)

의 법(法)이 서있는데 비해, 동양의 불교, 유교, 신도 등은 이렇다 하는 역사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한 연구의 법도 서있지 않다"[6] 라는 것에 있었다. 나아가 1881년에는 가토 히로유키 등과 함께 『동양학예잡지(東洋學芸雜誌)』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노우에의 사상 형성에 있어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약 7년여에 걸친 독일 유학이었다.

이노우에는 1884년 2월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그는 하이델베르크, 라이프치히, 베를린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한 후, 1887년에는 베를린의 동양학교의 강사에 취임하기도 했다. 이 무렵 독일을 방문하고 있던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와 만나 당시 조약개정에 수반한 내지잡거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노우에는 1889년 6월에 『내지잡거론(內地雜居論)』을 기초하고, 9월에는 일본에서 출판하였다.[7] 이 책에서 이노우에는 내지잡거에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 근저에 놓여있는 것은 서양에 대한 열등감이었다. 곧 이노우에에 의하면, "일본인은 구주인(歐州人)에 대해 여전히 열등한 인종이라는 것을 학식 있는 자는 모두 숙지하고 있다"[8]는 것이다. 따라서 우등인종인 구주인과 열등인종인 일본인의 잡거는 생존경쟁에서 패배하여 결국 일본의 멸망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9] 물론 이러한 열등의식은 근대 초 일본의 이른바 계몽지식인들에게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었는데, 대체로 서양문명을 도입하는 것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일본을 서양화, 근대화하는 것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졌던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는 일본을 비롯한 동양 고유의 정신이 갖는 의미를

---

6) 井上哲次郎, 「德育の変遷に就ての所感」, 『巽軒講話集』, 博文館, 1903.8, p. 243.
7) 沖田行司, 前揭論文, p. 206.
8) 井上哲次郎, 『內地雜居論』, 哲學書院, 1889, p. 50.
9) 井上哲次郎, 上揭書, pp. 49-52.

발견하여 서양을 상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고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비판은 그에게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1890년 독일에서 귀국한 이노우에는 도쿄대학의 문과대학교수에 취임하고, 최초의 종교학에 관한 강의인 '비교종교 및 동양철학'을 개설하는 한편,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 당시 문상(文相)으로부터 교육칙어의 해설을 쓰도록 의뢰받아 『칙어연의(勅語衍義)』를 간행하기도 했다. 여기서 이노우에는 칙어의 주지를 '효제충신(孝悌忠信)'의 덕행을 닦고, '공동애국(共同愛國)'의 마음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민심(民心)'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말한다.[10]

> 우리나라가 강고한 소이는 억조(億兆)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이로써 천황폐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흡사 사지(四肢)가 홀연히 정신이 향하는 바에 따라 움직이고, 조금도 정체하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은 데 있다. 애당초 국가는 일개체(一個體)로서 유일한 주의(主義)로써 이를 관철해야 하고, 결코 민심을 둘 셋으로 해서는 안된다. 결합일치는 실로 국력을 강하게 하는 법으로서, 예를 들면 나뭇가지 하나는 약하나, 모아서 이를 다발로 하면 쉽게 부러뜨릴 수 없는 것과 같이, 만일 무릇 신민이 모두 결합하여 일개체가 되고 이로써 주군(主君)에 복종하고, 주군 또한 하나의 주의로써 신민을 통합 결속할 때는, 국가의 기초가 비로소 공고하게 된다.[11]

곧 이러한 민심이 한 가지 주의, 곧 칙어에 따라 결합하였을 때 비로소 일본이 강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노우에가 이와 같은 주군-신민 관계를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부연설명하는 점은 중요하다.

---

10) 井上哲次郎, 『勅語衍義』卷上, 1891.9, p. 3.
11) 井上哲次郎, 上揭書, pp. 5-6.

> 국군(國君)의 신민(臣民)에 대한 관계는 마치 부모의 자손에 대한 관계와 같다. 즉 일국(一國)은 일가(一家)를 확충한 것으로 일국의 군주가 신민을 지휘 명령하는 것은, 일가의 부모가 자애의 마음으로 자손에게 분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천황이 전국의 신민을 불러일으킨다면, 신민된 자는 또한 모두 자손이 엄부자모(嚴父慈母)에 대한 마음으로써 근청감패(謹聽感佩, 삼가 듣고 마음에 새김 - 인용자)하지 않으면 안된다.[12]

이와 같은 이노우에의 논리는 문부대신의 의뢰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흡사 국정의 칙어해석과 같이 유포되었음은 물론, 도쿄제국대학 교수이자 문학박사라는 그의 지위는 이 책의 권위를 더욱 높였다.[13] 따라서 이러한 이노우에가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대대적으로 표명했던 것이므로 세상에서의 반향은 대단히 컸다.

그리고 1892년 11월 『교육시론(教育時論)』지에 '종교와 교육의 관계에 있어서 이노우에 테츠지로 씨의 담화'가 게재되면서 본격적인 논쟁의 불이 붙게 된다. 이 글은 일본의 국체와 기독교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이노우에가 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글인데, 여기서 이노우에가 기독교에 가한 공격은 대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곧 기독교는 비국가적이며, 출세간(出世間)적으로 현세를 중시하지 않고, 때문에 '효제충신'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한편, 기독교의 '애(愛)'와 칙어의 '박애(博愛)'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는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노우에는 먼저 칙어에 대해 말하기를, 칙어는 일본 고유의 도덕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충군애국'의 덕을 키우는 것, 곧 각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도덕을 말한 것이며 한 마디로 말하면 '국가주의'라고 정의한다.[14] 이에

---

12) 井上哲次郎, 上揭書, pp. 10-11.

13)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近代天皇制の形成とキリスト教』, 新教出版社, 1996, p. 270.

14) 「宗教と教育との關係につき井上哲次郎氏の談話」, 『教育時論』 272, 1892.

비해 기독교는 어떠한 것인가.

> 야소교는 본래 출세간의 일을 중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항상 무게를 미래에 두고 미래로써 영원무구의 세계로 여기고 현세를 무상한 장소로 여긴다. 현세는 기껏해야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세를 심히 가볍게 여기고 이에 따라 현세의 사물 역시 천하게 경시하는 마음을 갖는데 비해, 칙어의 정신은 공맹의 주의와 마찬가지로 무게를 현세에 두고, 미래의 일은 일절 묻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칙어의 정신과 야소교의 정신은 그 취의를 대단히 달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15]

즉 기독교는 속세를 벗어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미래에 중 점을 두며 미래를 영원무궁의 세계로 여기는 한편, 현세는 미래에 대한 입구로 밖에 여기지 않으므로 현세를 심히 경시한다는 점이야말로 칙어의 정신과 대단히 그 뜻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노우에의 다른 논설 중에 흥미로운 것으로 요코이와의 인연으로 『육합잡지(六合雜誌)』에 게재되었던 1892년 2월 '왕양명의 학을 논함'(134호)이라는 논설과 메이지 1893년 1월 '장자의 학에 대해'(145호)라는 두 논설이 있다. 우선 전자의 논설에서는 옛사람의 설이나 주자의 주석 등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학문의 근거로 삼은 윤리학을 전개했던 왕양명을 명대 이후의 최고의 학자이자 탁월한 철학자라고 칭찬한 반면,[16] 후자의 논설에서는 장자가 인도(人道) 보다도 천도(天道)에 무게를 두고, 인간사회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사회 이상의 일, 이른바 '출세간(出世間)'의 일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대단히 염세적 경향이 강하여 허무적 성질을 가지며, 아울

11, p. 24.

15) 上揭論文, p. 24.

16) 井上哲次郎, 「王陽明の學を論ず」, 『六合雜誌』134, 1892.2, pp. 30-31.

러 진리를 탐구하려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어 오늘날의 학술적 정신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17] 이들 논설을 통해서도 이노우에의 동양 전통 사상을 보는 시점과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그의 기본자세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장자' 비판의 관점은 이노우에의 독창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유교의 노장, 불교 등에 대한 비판의 시점을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애(愛)'와 칙어의 '박애(博愛)'에 대해 구별하여 말하기를, 칙어의 '박애'는 유자(儒者)가 말하는 '박애'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남의 부모를 공경할 수 없듯이, 먼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한 후에 다른 사람의 부모도 공경하는, 이른바 차별적 '애(愛)'인데 비해 기독교가 말하는 '애'는 묵자의 겸애의 설과 마찬가지로 자타(自他), 친소(親疎), 원근(遠近)의 차별 없이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한다.[18] 특히 이러한 '박애'의 문제를 가지고 일찍이 맹자와 묵자가 충돌했던 일을 인용하며, 기독교와 칙어도 결국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또한 기독교의 충효관의 부재에 관해 큰 결함이라고 말한다. 곧 중국과 일본의 도덕에서는 '충'과 '효'를 최고의 덕으로 세우고 있으나 기독교는 여기에 대단히 냉담하다고 하며 마태복음 8장 21, 22절[19]과 누가복음 2장[20]에서의 예수와 부모 간의 대화를 인용하

17) 井上哲次郎,「莊子の學に就て」,『六合雜誌』145, 1893.1, pp. 25-32.

18) 宗教と教育との關係につき井上哲次郎氏の談話」,『教育時論』272, 1892.11, pp. 24-25.

19) 마태복음 8:21-22.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0) 누가복음 2:48-49.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

여 그 행동이 공자가 말한 부모에 대한 효와는 맞지 않으며, 나아가 예수의 행위에 '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21] 이노우에는 이상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점을 들어 기독교의 주의와 일본 종래의 도덕, 곧 칙어의 정신과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일본에 유해할 뿐으로 이를 당장 금지해야 하는 것인가.

> 야소교의 현세에 대한 도덕과 칙어의 정신을 비교하면 논한 것처럼 차이는 있으나, 야소교는 원래 출세간적인 것이므로, 애초부터 종교로서 이것을 봐야한다. 종교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였으므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야소교의 현재 그대로의 성질로는, 이미 일본인의 성질과 서로 맞지 않으므로, 결코 크게 만연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반드시 일본인의 성질과 동화할 수 있도록 그 교의 방법을 개변한 후에 비로소 세상에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야소교의 목사 되는 사람들 중에, 모모씨와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점을 알아차리고, 야소교를 일본의 국성(國性)에 맞도록 개진에 진력하고, 그 중에는 칙어도 회당에서 강술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자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야소교도 점차 그 성질을 바꿔 현재와 같은 상태로 영존하지 않을 것이다.[22]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노우에는 기독교가 칙어의 정신과 그 정신을 달리한다고 해서 곧장 배제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신교의 자유를 인정했으므로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인상 깊다. 그러나 대신 기독교의 성질이 현재 일본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 성질을 바꿔야 한다

여 너를 찾았노라 /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21) 「宗教と教育との關係につき井上哲次郎氏の談話」, 『教育時論』 272, 1892. 11, p. 25.

22) 上揭論文, p. 26.

고 논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에는 이미 불교와 같이 이론에 풍부한 종교도 있고, 신도와 같이 인심에 고착한 종교도 있으며, 유교와 같이 상류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종교가 있으므로 일본에 기독교가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상이 『교육시론』에 게재되었던 이노우에 테츠지로의 담화의 내용인데, 이로부터 기독교계의 반박이 계속되었고, 이 문제에 관한 논쟁 문서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전해진다.[23] 이에 따라 이노우에는 같은 잡지에 '교육과 종교의 충돌'[24]을 수차례에 걸쳐 기고한 후 이 글들을 모두 정리하고 또한 몇몇 글을 덧붙이는 형태로 『교육과 종교의 충돌(教育と宗教の衝突)』이라는 책을 1893년에 간행하였다. 참고로 이 책의 서두에서 이노우에가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 측의 반론으로는 요코이 도키오가 『육합잡지』에 기고했던 '덕육에 관한 시론과 기독교', 혼다 요이츠(本田庸一)의 '이노우에 씨의 담화를 읽음'(『교육시론』276호, 277호)을 비롯해, '칙어와 기독교'(『도시샤문학(同志社文學)』60호), '일본의 덕육문제' (『자유기독교(自由基督教)』제2권 5호)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글들이 자신의 논지를 반박하기 위해 게재되었는데 견강부회에 불과할 뿐으로 하나하나 답변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으므로 이 책을 통해 답변으로 삼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5]

---

23)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史』, 新教出版社, 2004(5版), p. 116, 참고로 이러한 논쟁에 관해서, 關皐作編, 『井上博士と基督教徒』, 『同續編』, 『同收結編』(모두 哲學書院, 1893)에 수집된 것만으로도 저서 30권, 논문 200편 이상이 있다.(土肥昭夫, 上揭書, p. 120.)

24) 『教育時論』279-281号, 283号.

25) 井上哲次郎, 『教育と宗教の衝突』, 敬業社, 文盛堂, 哲學書院, 1893, pp. 1-3.

3. 요코이 도키오의 이노우에에 대한 반박

요코이 도키오(横井時雄)는 히고번(肥後藩), 곧 구마모토번(熊本藩)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요코이 쇼난(横井小楠)으로 그는 히고번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던 유학자의 한 사람이었다. 한편 요코이 도키오는 부친인 쇼난 사상의 계승을 위해 설립되었던 구마모토양학교(熊本洋學校)에 입학하게 되는데, 여기서 구마모토밴드의 일원으로 기독교에 입신하고 이후 목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요코이 도키오는 항상 유교와 기독교를 연속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통해 수신의 형태로 유교의 이상을 내거는 한편 그 방법으로서는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 신일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요코이가 이노우에의 의견을 반박한 논설로는 앞서 이노우에가 그의 저서 『교육과 종교의 충돌』에서도 언급했듯이 '덕육에 관한 시론과 기독교'가 대표적이다. 이 무렵 요코이는 혼고(本郷)교회의 목사로서 일본의 도덕과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가 편집인으로 관여하고 있던 『육합잡지』(1890.5.17-1893.12.15)와 『기독교신문(基督教新聞)』(1892.3.4-1893.8.30) 등에 많은 논설을 기고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일단 요코이는 기독교를 '출세간적'으로 파악한 이노우에의 견해를 '정신을 초탈한 지망(志望)의 고결(高潔)'[26]이라고 표현하며 동의를 표한다.

> 이노우에 씨가 말하는 야소교는 출세간의 도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법 조리가 있다. 대개 기독교(基督教)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天)에 대해 지성(至誠)과 지애(至愛)를 갖도록 하는데 있고, 즉 이 천지간에 신명(神明)의 활동이 있어 천지만

26) 横井時雄, 「德育に關する時論と基督教」, 『六合雜誌』 144, 1892.12, p. 6.

> 유를 이끌어 정의와 행복의 영역에 나아가게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신의(神意)에 따라 심령적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27]

이상과 같이 기독교의 목적을 설명한 요코이는 기독교가 충효를 결여하고 있다는 이노우에의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이는 성서에서 말하는 충효가 이노우에가 말하는 유교와 취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요코이는 구약성서의 '부모에 불효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출애굽기 21:17)'나 신약성서의 '왕을 경배하고 집권자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만은 족하지 않아서인가' 라고 오히려 반론하는 것이다.[28] 요코이에 의하면 유교가 인륜을 말하고 인륜의 실행을 권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기독교는 신과 화합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고, 이러한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인륜을 실행하라고 명한다고 그 차이를 설명한다.

> 무릇 인륜의 길을 실시하려고 하는 데에는, 먼저 인간의 정신을 일신하여 의를 사랑하고 도(道)에 선 선인(善人)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우선 보통의 도덕을 기르고 그런 후에 특별한 도덕을 행할 수 있게 된다. … 때문에 기독교가 출세간적인 것은 도리어 진정으로 능히 세간적(世間的)이 되는 소이가 아니겠는가. … 내가 기독교를 주장하는 것은 대개 그 정신적 생명을 우리나라 사람 사이에 주입함으로써 현시 도덕계의 원기를 기르려고 하는데 다름 아니다.[29]

따라서 요코이에게 기독교는 일본인의 도덕적 원기를 기르는 것, 곧 '덕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유교와 일정 부분에

---

27) 横井時雄, 上揭論文, pp. 3-4.
28) 横井時雄, 上揭論文, p. 4.
29) 横井時雄, 上揭論文, pp. 4-5.

서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을지언정 양자 모두 덕육상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예수가 효를 가볍게 여겼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가 자기를 중시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명령보다도 진리의 명령을 중시했기 때문이며, 그러한 정신은 국가가 위급할 때 마땅히 부모를 떠나 국가에 봉사하는 유지가(有志家)들의 정신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불교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석가모니가 부친인 왕의 의지에 반하여 왕궁을 떠나 출가했다고 해서 불교가 효에 반한다고 이야기 하는가 라는 반문은 흥미로운 부분이다.[30]

한편 요코이는 기독교가 만일 주의하지 않으면 국가를 그르치고, 주의한다면 그 폐를 피할 수 있다는 이노우에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 곧 일본의 기독교가 단순히 구미의 기독교 그대로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미국과 독일이 독자적 기독교를 형성한 것처럼 일본 역시 자국의 문화와 습속에 적합한 기독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 내가 평소 기독정신으로써 구미에서 행해지는 관습, 풍속 및 신학으로부터 구별하고 그리하여 이를 우리나라에 보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소이가 바로 이 때문이다. 도덕사상과 같은 것은 동서입국의 근본이 조금 다름과 동시에 또한 그 취지를 달리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같은 공화국과 독일과 같은 군주국은 도덕사상의 모양이 상위하는 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도덕상, 종교상의 대혁신의 시기에 있어서 나는 크게 종래의 도덕사상과 풍속, 관습에 주의하고 그 정화를 취함으로써 기독교 도덕의 요소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31]

---

30) 横井時雄, 上揭論文, p. 5.
31) 横井時雄, 上揭論文, p. 6.

또한 요코이는 '충돌 걱정할 만하지 않다'라는 논설에서도 기독교가 만국동포주의를 가르치므로 국가적 교육에 반한다는 공격에 대해 우선 기독교는 인류적 종교로 국가적 종교가 아니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장 널리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잘 모든 사정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으로, 국가적 관념이나 혹은 국가교육주의에 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학이나 철학에 '국가적 과학', '국가적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나 각각 과학과 철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정치에 도움을 주듯이, 기독교의 원리를 응용하여 국가교육에 공헌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전세계의 사람들의 인심(人心)까지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2]

이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코이가 이노우에의 견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당초 요코이는 구마모토밴드의 일원으로 기독교를 통한 국가에의 공헌이라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요코이에게 기독교가 모든 사정에 잘 응용될 수 있다는 점, 역사적 정황에 따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여겼던 점은 중요한 인식상의 지점으로, 이를 통해 기독교가 결코 이노우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민도덕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합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충돌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코이는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33] 이러한 요코이의 생각은 '현금의 덕육법을 평론하고 아울러 당사자에게 일책을 건의함'이라는 논설에서 덕육의

32) 横井時雄,「衝突恐るゝに足らず」,『六合雜誌』147, 1893.3.15, pp. 6-7.
33)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上揭書, p. 276.

문제는 국가적 대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현재 덕육의 퇴폐 때문에 교육칙어가 나왔는데, 그것에 따라 덕육에 종사하는 인재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덕육 교육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기독교 교사를 채용할 것을 건의하는데 까지도 이르렀던 것이다.[34]

요코이는 이노우에의 논의에 변박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금 기독교도로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게 된다. 요코이는 일본의 근대 국가 형성에 있어 필요한 정신적 기초로 확신하고 있던 기독교가 천황제 신민 도덕과 충돌하며 속세간의 일을 중시한다는 비판에 대해 시대나 지역에 따라 그러한 것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기독교의 본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나아가 그리스도가 천국을 말했던 이유는 현 세계를 위해서, 다시 말해 지금 현 세계, 현 사회에서 다양한 자비의 사업을 행할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냈던 것이다.[35] 곧 기독교가 칙어교육에도 적합하고 공헌할 수 있다는 자기변호적 기독교 인식이었던 것이다.

4. 이노우에의 요코이에 대한 재반박

그렇다면 마지막으로『교육과 종교의 충돌』에서 직접적으로 요코이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이노우에의 요코이 비판의 논리를 살펴보자. 우선 이노우에는 기독교가 비국가주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요코이의 '충효와 기독교' 라는 논설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인용한다.

---

34) 横井時雄,「現今の德育法を評論し併せて當路者に一策を獻ず」,『六合雜誌』148, 1893.4.15, pp. 1-6.

35) 横井時雄,「德育に關する時論と基督敎」,『六合雜誌』144, 1892.12.15, p. 7.

> 요코이 도키오 씨는 야소반대자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일시의 사상 혹은 그 습관 보다 위에 영원한 주의(主義)가 있고, 만고의 진리가 있으며, 움직일 수 없는 천(天)의 이법(理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36]

이에 대해 이노우에는 이러한 영원한 주의, 만고의 진리, 하늘이 이법 등은 철학자나 이학자가 매일 궁구하고 있는 일로서 기독교가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재 철학의 진보나 이학의 개발에 의해 기독교가 구주(歐州)에서도 점차 세력을 잃고 있는 것은 온전히 기독교의 교지가 그릇된 데에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원한 주의, 만고의 진리 등을 구실로 비국가주의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논한다. 그리고 기독교가 비국가주의적이며 유해하다는 견해는 이미 구주의 여러 학자들도 이미 인정한 바라고 덧붙인다.

또한 이노우에는 동양 고래의 가르침은 모두 충효로 집약되며, 칙어의 정신 역시 충효를 최대의 윤리로 하는데 기독교는 충효의 가르침을 거의 하지 않고 몇몇 부분에서 말하는 충효 역시 동양 고래의 가르침과 다른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37] 그러면서 예수가 유대인에게 로마정부에 세금을 바칠 것을 권면했던 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코이의 글을 인용한다.

> 예수는 유대의 애국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세(國勢)는 쇠미(衰微)하고 자립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외국에 속하기에 이른 이상, 로마정부가 외국 정부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상교(偶像敎)의 정부임에 불구하고, 역시 동시에 이에 공(貢)을 납부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 하물며 그 나라 독립하여 일천만승(一天萬乘, 천하를 다스

36) 井上哲次郎, 『敎育と宗敎の衝突』, 敬業社, 文盛堂, 哲學書院, 1893, p. 44.
37) 井上哲次郎, 上揭書, p. 85.

리는 천황)의 군주를 받드는데 있어서이랴.[38]

이노우에는 요코이가 위의 인용을 통해 예수가 '충도(忠道)'를 가르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예수가 단지 세금을 로마정부에게 바치라고 말한 것만을 가지고 '충군(忠君)'의 주의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한다. 그러면서 충군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세금을 정부에 바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라면, 기독교도의 충군이야말로 단순하기 그지없는 한편, 세금만 납부하기만 한다면 불경사건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비난한다. 또한 이노우에는 예수의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점, 나아가 애국자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당시 유대국에는 헤롯이라 하는 왕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는 헤롯왕에 대해 어떠한 충의를 행했는가. 헤롯왕은 원래 폭군이지만 예수는 일찍이 이를 저지한 일 있는가. 또한 이를 교정한 적 있는가. 또한 방책을 내어 이를 해결하려고 했는가.[39]

이노우에는 효경 제20장 간쟁장(諫諍章)의 말까지 인용하여 헤롯왕에게 간쟁한 일 조차 없는 예수는 결코 충군을 중시하지도 않았고, 또한 충군을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무릇 국가는 융성할 때 충의의 지사가 필요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쇠미하고 어려울 때 더 많은 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롯왕이 폭군으로 실정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국가의 일을 전혀 도외시하고 무리에게 천국의 일만을 말한 것은 그 충군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의 확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40] 이노우에는 예수가 진정한 애국자라면 로마에 자국이

38) 井上哲次郎, 上揭書, p. 87.
39) 井上哲次郎, 上揭書, p. 88.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병을 일으켜 타국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꾀했을 것인데, 단지 그러한 타국에 세금을 바치라고 냉담하게 답변한 것은 충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명료한 증거가 된다고 여겼다. 때문에 이노우에는 요코이의 변호에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말하며, 나아가 요코이가 칭송하여 말하는 기독교의 충도의 가르침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심히 그 결과 여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로마서 13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며,[41] 예수교도 중에도 다소 주군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자가 있으나 그 또한 결코 동양 고래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바울의 주지는 집권자를 신이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복종의 이유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든가, 선조 이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든가, 혹은 기타 실제상의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집권자 역시 온전히 신이 명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신에게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집권자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오직 신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이런 구도에서는 만일 신이 세우지 않은 집권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복종해야 된다고는 조금도 말할

40) 井上哲次郎, 上揭書, pp. 89-90.

41) 로마서 13:1-6.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42]

> 그렇지만 동양 고래의 가르침에서는 주군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은 신이 명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은 신민이 마땅히 다해야 할 바라고 직각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공자는 '나아가서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잘못을 고칠 것을 생각하며 장차 그 아름다움을 따르고, 널리 그 악한 것은 구제해야 한다'[43] 고 말했다. 이것은 결코 주군은 신이 명하는 바이므로 이를 섬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44]

그러면서 이노우에는 일본의 천황은 수천년 이래의 황통을 이어받아 일본 국민의 원수로 여겨지는 존재이나 예수의 신으로부터는 조금도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바울이 말한 기독교적 충의 개념에 따른다면 천황에 대해 조금도 충의의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반문했던 것이다.[45]

한편 이노우에는 기독교를 통한 근대화를 목표로 했던 요코이에 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다. "요코이 씨가 말하기를 도시에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위대장관(偉大壯觀)의 회당을 건립하는 것을 허락하고, 한촌벽지(寒村僻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설교가 퍼지지 않은 곳이 없는 금일"[46], 이러한 '야소교의 동점(東漸)' 이래 얼마만큼 일본의 풍속을 개량하였고 선미함을 더하였는가. 이에 대해 이노우에는 많은 교회당과 수없이 많은 설교들 때문에 일본에 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 후, 기독교

---

42) 井上哲次郎, 『教育と宗教の衝突』, 敬業社, 文盛堂, 哲學書院, 1893, pp. 91-92.

43) 孝經 21(事君章).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

44) 井上哲次郎, 『教育と宗教の衝突』, 敬業社, 文盛堂, 哲學書院, 1893, p. 92.

45) 井上哲次郎, 上揭書, p. 93.

46) 井上哲次郎, 上揭書, p. 67.

가 결코 국가의 개량과 진보를 이루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왜냐하면 서양 여러 나라의 번영은 과학의 진보에 따른 것으로, 과학의 정신과 기독교의 정신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 철학, 이학 등과 같이 진성(眞誠)의 과학은 처음부터 기정적(旣定的)인 것을 갖지 않는다. 우선 전반적으로 살펴 일종의 이법을 발견하면 이 진리를 근거로 또 다른 이법을 탐구한다. 그런데 신학은 처음부터 기정적인 것을 가진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성적(人性的) 신이 있다는 것을 기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인성적인 신은 책과 유대인의 공상에서 나온 것으로, 진성의 과학에 있어서는 결코 이와 같은 것을 기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때문에 신학은 과학이 아니고 완전히 과학의 정신에 반한다. 신학은 오히려 일종의 미신에서 나온 위학(僞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47]

이노우에는 서양의 근대과학으로부터 기독교를 분리하고 과학의 정신과 기독교의 정신이 서로 결코 상통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구주(歐州)의 세력이 왕성한 것이 기독교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전적으로 오견임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던 것이다.

이상이 『교육과 종교의 충돌』에서 이노우에가 요코이를 지명하여 비판했던 내용이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충'에 관한 이해의 차이이다. 기독교의 충효관이 동양의 전통적 충효, 나아가 일본의 충효와는 다르다는 견해는 유교를 기독교 가운데 포괄하려고 시도했던 요코이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일본의 전통적 도덕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콤플렉스를 자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기독교와 서양을 분리하여 '문명의 종교'라는 성격을 박탈함으로써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통해 담당

47) 井上哲次郎, 上揭書, pp. 53-54.

하고자 했던 근대화에 있어서의 역할과 사명까지도 부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이노우에의 기독교 비판에 대해 요코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칙어의 도덕과 국가주의와 모순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칙어체제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천황제 국가가 제시한 국가주의에 의문을 표하기보다는 국가주의를 옹호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곧 "유신을 통해 형체상의 개량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칙어를 통해 정신상의 개량"[48]을 이뤄야 할 것을 주장했던 이노우에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길로 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5. 맺음말

지금까지 동양 고래의 정신과 기독교의 정신이 서로 통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이노우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을 시도했던 요코이의 변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른바 '교육과 종교의 충돌'에 관한 논쟁의 일부를 확인하였다. 실상 기독교를 통해 일본의 근대화에 공헌한다는 생각은 요코이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공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노우에의 기독교 공격을 맞이하여 다시금 자신들의 종교적 본질을 확인하고 천황제 국가주의의 확산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를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요코이는 기독교가 천황제 국가주의자가 부르짖는 충군애국을 가르치면서 이를 실행할 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민교육과는 충돌이 없다고 주장하

48) 井上哲次郎, 『勅語衍義』巻上, 1891.9, p. 7.

며, 천황제 국가의 지배체계 가까이에 접근하여 기독교의 유효성을 변호했다.[49]

그런데 충돌의 두 주체, 각각 '교육'과 '종교'를 대표하는 이노우에와 요코이 사이에 공통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이노우에의 기독교 비판의 방법에는 유교를 비롯한 동양 전통 사상을 호출하는 것과 함께, 서양의 근대 과학적 합리주의 정신이 모순 없이 병존하며 그의 논리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노우에는 서문에서 '동서(東西) 각종 사상을 참작하고 용주(鎔鑄)하여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 것'에 자신이 동서 각종 철학과 종교를 연구하여 진리를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공언하고 있었던 것이다.[50] 이것은 유교적 범주에서 변혁의 길을 모색했던 부친 요코이 쇼난의 뒤를 이은 요코이 도키오가 마찬가지로 유교적 소양과 기독교 사상의 융화를 통해 새로운 사상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그 사상의 독특성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여겨진다.

본고는 '교육과 종교의 충돌'이라는 논쟁의 일부를 들어 일본의 기독교 수용문제, 나아가 근대 서양 지식의 수용에 있어서의 전통 사상과의 관련성 문제를 확인한 한 사례에 불과하다. 향후 이노우에와 요코이의 입장과 사상을 더욱 심화하여 고찰할 필요와 함께 요코이 이외의 여타 기독교 관계자들의 입장을 확인해보는 것을 통해 한층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49) 土肥昭夫, 上揭書, pp. 116-117.

50) 井上哲次郎, 『教育と宗教の衝突』, 敬業社, 文盛堂, 哲學書院, 1893, p. 12.

참고문헌

1. 기본자료

井上哲次郎, 『內地雜居論』, 哲學書院, 1889.
井上哲次郎, 『勅語衍義』卷上, 1891.9.
「宗教と教育との關係につき井上哲次郎氏の談話」, 『教育時論』 272, 1892.11.
井上哲次郎, 「王陽明の學を論ず」, 『六合雜誌』134, 1892.2.
井上哲次郎, 「莊子の學に就て」, 『六合雜誌』145, 1893.1.
井上哲次郎, 『教育と宗教の衝突』, 敬業社, 文盛堂, 哲學書院, 1893.
井上哲次郎, 「德育の変遷に就ての所感」, 『巽軒講話集』, 博文館, 1903.8.
横井時雄, 「德育に關する時論と基督教」, 『六合雜誌』144, 1892.12.
横井時雄, 「衝突恐るゝに足らず」, 『六合雜誌』147, 1893.3.15.
横井時雄, 「現今の德育法を評論し併せて當路者に一策を獻ず」, 『六合雜誌』148, 1893.4.15.
『孝經』 21(事君章)
「奉教趣意書」
『성서』(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2. 논문

김도형, 「근대초기 일본 양학(洋學)수용의 유교적 맥락 – 가토 히로유키의 도나리구사를 중심으로」, 韓國日本學會, 『日本學報』 제99호, 2014, pp.363–380.
_____, 「加藤弘之의 洋學受容과 '天'의 變容」, 東洋史學會, 『東洋史學研究』 제128집, 2014, pp.349–384.
_____,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진화론수용 이해–「疑堂備忘」 독해를 중심으로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제27호, 2014, pp.25–52.
_____, 「1874년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민선의원설립 시기상조론에 관한 일고찰」,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제72호, 2014, pp.327–354.
沖田行司, 「『六合雜誌』における井上哲次郎」, 同志社大學人文科學研究所キリスト教社會問題研究會, 『キリスト教社會問題研究』第30号, 1982, pp.200–219.

3. 단행본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옮김,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海老澤有道, 大內三朗, 『日本キリスト教史』,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80(7版).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近代天皇制の形成とキリスト教』, 新教出版社, 1996.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史』, 新教出版社, 2004(5版).

[Abstract]

A Study of the Controversy on "Reigion versus Education"

- Focused on Inoue Tetsujiro and Yokoi Tokio -

Park, Eun-Young

October 30, 1890,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as published in the name of the Emperor Meiji functioned as a core of the national ruling ideology of Imperial system. A Meiji government tried to create the absolute emperor image through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and emphasized courtesy and obedience to the idea of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to all the people. Among the events surrounding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as the embodiment of ideology of Imperial system, the most famous such incident was the incident of lese majesty by Uchimura Kanzo(內村鑑三). Taking this opportunity, the Controversy on "Reigion versus Education" was brought to conflict between nation and Christianity officially. Inoue Tetsujiro(井上哲次郎) who led this controversy insisted the Imperial system as national polity(國体) was difficult for Christianity to coexist. In this regard, Japanese Christian leaders tried to take a positive attitude through excuse and criticism about Inoue's argument.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aspects of the debate between Inoue and Yokoi Tokio(横井時雄) who sticked to the spirit of nationalism strongly, and lay out a logical basis for main agent of conlict.

Key words: Inoue Tetsujiro(井上哲次郎), Yokoi Tokio(横井時雄), The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Kyoiku chokugo, 教育勅語), Incident of lese majesty, The Controversy on "eigion versus Education", Japanese Christianity

박은영
소속: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10B
전화번호: 02-760-0890
전자우편: golopark@skku.edu

이 논문은 2015년 3월 8일 투고하여
2015년 4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5일 게재 확정함.